
국립국어원 소식

I .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1.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모두 한 자리에

‘2011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7월 4일부터 2주간－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원장 박석준)은 7월 4일부터 2주 동안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세계 20개국 51명의 비원어민 한국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199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초청 연수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한국어 교수법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외 한국어 학습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대 및 한국 문화에의 관심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 참가자들은 20개국의 재외 공관에서 추천을 받은 현지의 우수 한국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외 대학의 교수, 한국어 교재 및 드라마 번역가 겸 한국어 강사, NGO 단체 한국어 교육 담당자, 현지 한국어 학원 강사 등 한국어와 인연을 맺은 면면이 다양하다.

이번 연수는 총 100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국립국어원장의 특강, 기본

교과 44시간, 현장 학습 및 문화 체험 41시간, 토론회,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각국의 현지 한국어 교육의 현황 파악과 지속적인 교류로 국외 한국어 교육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어 정책 토론회 개최

‘국제화 시대 국어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총 6회 진행

지난 6월 23일 목요일 방송회관에서 ‘제1회 국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국어학회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국제화 시대 국어 정책의 방향’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6월 23일에 열린 제1회 토론회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에서는 중국 인명·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한자음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7월 7일에 열린 제2회 토론회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에서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7월 21일에 열린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에서는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8월 11일에 열린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에서는 표준어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8월 25일에 열린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에서는 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9월 9일에 열린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에서는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를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객석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선일보에서는 ‘국어 정책 토론회’ 토론 마당(<http://forum.chosun.com/bbs.reple.bbsList.screen>)을 개설하였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어 정책 토론회의 전체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회차	일시	주제
제1회	6월 23일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중국 인명·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제2회	7월 7일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제3회	7월 21일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제4회	8월 11일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제5회	8월 25일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제6회	9월 8일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이번 토론회는 국어 정책의 쟁점이 되는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 순화’ 등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참고가 될 것이며, 국어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1.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 외래어·외국어 남용 심각

—국립국어원, 방송 프로그램 언어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실태 조사를 통하여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지상파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 사용을 분석한 결과, 총 104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으로, 이것을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은어, 비표준어, 전문 용어 등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62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용어가 22건(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부 해설자들의 언어에서는 방언 어휘나 비표준 발음이 많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사례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루니 선수 깃스 이런 선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빠른 카운터어택을 박지성 선수가 끌어갈 것으로 보이구요.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과워풀하고 다이내믹한 동작과 함께 아름다움과 섬세함까지 갖춘 파워요가의 기술적 실행능력이 우수함 〈KBS2 2011 국제 대학 에어로빅스, 자막〉
전문 용어	이택근, 6-4-3. 투아웃입니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자, 1루에서 스코어링 포지션까지 움직이는 김태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등	물론 테레비로 시청하면서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이 커터볼이 잘 안 드갈 경우에는 뽕 배합이 인제 틀려지겠조.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대본 없이 진행되는 중계방송에서는 진행자와 해설자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기 관련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이번에 조사한 자료를 해당 방송사 제작진에게 보내 앞으로 방송 제작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개선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방송 언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송 언어의 품격이 점차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세종학당 교원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실시

－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9일간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 한국어문화교육원은 8월 16일부터 9일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세계 15개국 51명의 한국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초청 연수는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한국어 교수법,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심화된 최신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확대 및 한국 문화에의 관심 증대를 이끌어 내고자 실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는 교원들로서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10개 과목 48시간을 이수하였다.

또한 본 연수 참가자(총 51명,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등 15개국 34개 세종학당·세종교실 소속 한국어 교원)들은 서로 국외 현지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망을 구축

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를 나눔으로써 향후에도 연수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수는 총 59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기본 교과(모의 수업 및 참관 포함) 48시간, 문화 체험(전통 놀이, 민요, 악기 체험 등) 4시간, 특별 활동(의식 행사, 공연 관람 등) 약 7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과정에는 전국 각 대학의 유명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들의 교과 강의가 제공되었으며, 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교육을 체험하는 모의 수업 시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 및 특별 활동 등을 실시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라디오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많아

—국립국어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언어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지상파 방송 3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7월 한 달간 지상파 방송 3사의 라디오 프로그램(KBS2FM 미스터라디오, 키스 더 라디오, MBC표준FM 두 시 만세, 별이 빛나는 밤에, SBS과워FM 두 시 탈출 켄투쇼, 영스트리트, 텐텐클럽)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를 분석한 결과, 총 90건 이상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지적한 것은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으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 은어, 비표준어 등을 대분류로 삼았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반말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시 탈출 켄투쇼>의 경우 특히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과 반말 사용이 잦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사례
비속어	(1) 직장 상사를 썸은 세 분 세 분 모여 주세요.(→비난한) 〈KBS 2FM,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2) 너무 많이 타갔구 두 발 중에 하나는 빠가났어요.(→고장났어요) 〈MBC표준FM, 두 시 만세, 김종진〉 (3) 여친하고 600일이니까 여우 같은 기집애들이 꼬리 치지 않게 사내 방송도 해 주시고요.(→여자친구, 여우 같은 계집애(영악한 여자애), 유혹하지) 〈SBS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김태균〉 (4) 남자는 약간 좀 무데뽀 같은 느낌이어도 여자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막무가내) 〈SBS파워FM, 텐텐클럽, 베이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1) 우리가 (방청객이 데려온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머리가 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딕 사람들을 좋아해요. 〈SBS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2) 오늘도 어김없이 좀 엉뚱하고 이상하고 소외 계층 가수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분께 큰 웃음을 드리고 있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SBS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은어	(1) 저희 본당 신부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종교에 몰빵하라.”(→모든 것을 걸어라) 〈MBC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2) 어떻게 보면 밀당이죠.(→밀고 당기기) 〈SBS파워FM, 텐텐클럽, 김경록〉
반말	(1) 사내 방송을 우리가 어떻게 해? 〈SBS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2) (재수생이라고 밝힌 청취자에게) 엄마한테 눈총 많이 받았네, 부모님한테. 〈SBS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부적합 표현	(1) 이런 애들은 싹을 끊어 버려야 돼. (자신의 인기에 위협이 되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 〈SBS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2)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섹시하세요. 〈SBS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유형	사례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	(1) 솔리스타라는 앨범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이 …… 대단한 뮤지션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었거든요.(→음악가, 공동 작업(협업))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김범수〉 (2) 시간을 관장하는 뇌에 데미지를 입은 거 같아요.(→손상, 상처) 〈MBC표준FM, 두 시 만세, 전태관〉 (3)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요.(→유서 있는 물건, 오래된 물건) 〈MBC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4) 라디오 듣고 기분 업 되셨으면 좋겠어요.(→기분 좋아지셨으면) 〈SBS파워FM, 텐텐클럽, 이석훈〉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매일 같은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말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진행자와 제작진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반말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 예능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여전

—국립국어원, 예능 프로그램 언어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지상파 방송 3사의 주말 저녁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품격 언어 사용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지난 8월, 각 방송사의 주말 예능 프로그램(KBS 2TV ‘해피선데이’, MBC ‘무한도전’, SBS ‘일요일이 좋다’) 총 세 편의 1회분(7월 30일, 31일) 총 450분 분량의 방송 언어를 분석한 결과, 총 199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2~3분에 1회 꼴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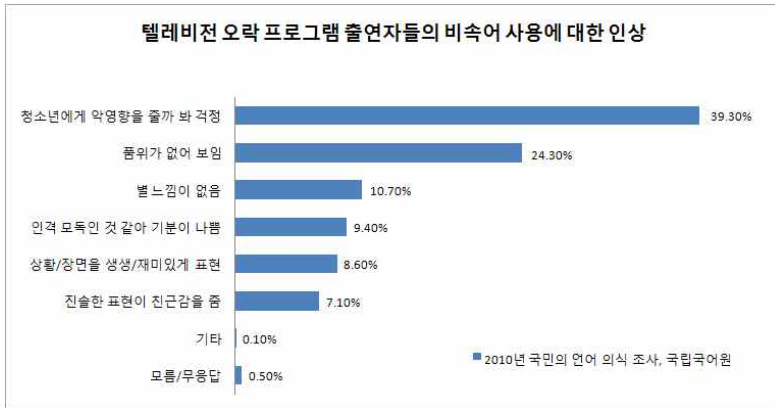
이번 예능 프로그램 언어 사용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외국어가 과도하

게 사용된 사례가 50%를 차지하였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15%, 비속어, 은어의 사용이 11%, 부적합 표현이 10%로 나타났다. 또한 연장자나 초대 손님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례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적합 표현에서는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지적하였는데, 자막의 표기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사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졸지에 공식 지진아로 찍힌 현무 <남자의 자격, 자막> 아,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 몸이 그따위라구요?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신동엽>
비속어·은어	시작부터 환장 팀워크 <런닝맨, 자막> 2011 S/S in 밀라노 Milan 베스트 포즈 대갈리니 <무한도전, 자막>
반말	왜 나왔나? 재. <무한도전, 박명수> 야! 이번에는 진짜로 해. <무한도전, 하하>
불필요한 외국어	완전 땡큐한 가격이네. <1박2일, 이승기> 웰 컴 투 청춘합창단 <남자의 자격, 자막>
부적합 표현	시계 보곤 얇은 다리로 후다닥! <무한도전, 자막> 어……. 근데 왜 나왔데요? <무한도전, 자막>

그런데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은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시청률도 높고 시청층도 다양하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의도는 좋으나 상대방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무리한 설정을 통한 비속어, 막말의 사용은 시청자의 정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2010, 국립국어원)에서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 국민들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품위가 없어 보임’(24.3%), ‘별 느낌이 없다’(10.7%), ‘인격 모독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쁨’(9.4%)이라고 응답하였다.



위 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은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에 대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이 국민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5.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5.1. ‘롤 모델(role model)’은 ‘본보기상’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롤 모델(role model)’의 다듬은 말로 ‘본보기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롤 모델’은 ‘존경하며 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또는 자기의 직업, 업무, 임무, 역할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롤 모델’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504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본보기상’, ‘모범상’, ‘미래거울’, ‘꿈길잡이’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61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본보기상’은 936명(57%), ‘모범상’은 288명(17%), ‘미래거울’은 174명(10%), ‘꿈길잡이’는 217명(13%)이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본보기상’이

‘롤 모델’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2. ‘풀옵션(full option)’은 ‘모두갖춤’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풀옵션(full option)’의 다듬은 말로 ‘모두갖춤’을 최종 선정하였다. ‘풀옵션’은 ‘승용차, 주택, 여행 상품, 장비 따위에 추가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갖춘 것’을 이르는 말이다.

‘풀옵션’을 갈음할 우리말로 누리꾼이 제안한 492건 가운데, ‘다갖춤’, ‘모두갖춤’, ‘모두구비’, ‘완전갖춤’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58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906명(57%)이 지지한 ‘모두갖춤’이 ‘풀옵션’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3. ‘코스프레(costume play)’는 ‘분장놀이’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의 다듬은 말로 ‘분장놀이’를 최종 선정하였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코스프레’를 갈음할 우리말로 누리꾼이 제안한 450건 가운데, ‘변장놀이’, ‘본뜨기놀이’, ‘분장놀이’, ‘흉내놀이’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4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748명(51%)이 지지한 ‘분장놀이’가 ‘코스프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4. ‘플래시몹(flash mob)’은 ‘번개모임’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플래시몹(flash mob)’의 다듬은 말로 ‘번개모임’을 최종 선정하였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전자 우편, 휴대 전화 등의 연락을 통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놀이나 행동을

취하고 흡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플래시몹’을 갈음할 우리말로 누리꾼이 제안한 372건 가운데, ‘기습집회’, ‘깜짝모임’, ‘반짝모임’, ‘번개모임’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5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576명(39%)이 지지한 ‘번개모임’이 ‘플래시몹’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5. ‘시스루(see-through)’는 ‘비침옷’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시스루(see-through)’의 다듬은 말로 ‘비침옷’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스루’는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을 이르는 말이다.

‘시스루’를 갈음할 우리말로 누리꾼이 제안한 354건 가운데, ‘망사옷’, ‘비침옷’, ‘비침의상’, ‘속비침옷’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54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994명(64%)이 지지한 ‘비침옷’이 ‘시스루’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6. ‘오픈프라이스제(open price 制)’는 ‘열린가격제’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오픈프라이스제(open price 制)’의 다듬은 말로 ‘열린가격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제조 업체가 결정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오픈프라이스제’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292건 가운데, ‘가격자율제’, ‘열린가격제’, ‘자율가격제’, ‘판매자가가격제’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35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559명(41%)이 지지한 ‘열린가격제’가 ‘오픈프라이스제’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6. 2011년 제2회 원내 토론회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2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주 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지표
- 발표자: 장 클로드 베아코(프랑스 파리3대학 교수, 유럽 평의회 언어 정책 분과 자문 위원)
- 일 시: 2011년 6월 30일(목요일)
-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파리3대학 장 클로드 베아코(Jean Claude Beacco) 교수를 초청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어떤 표준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현재 유럽에서 사용되는 유럽 공용 언어 등급과 시스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하였다.

공인된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서 언어는 구조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자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단어 목록(일상어, 전문 용어, 유의어, 어원, 언어 역사, 이중·다중어 사전들……)이 있어야 하며, 신조어와 표준어 규정 등을 관할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어로서 또는 제2언어로서 해당 언어를 교육하고 전파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어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학습자 평가를 위해 투명성이 보장되는 표준 지표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1970~80년대에 유럽 평의회가 등급 정도의 한계치(Niveaux seuils)를 정하여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 표준 지표이며, 유럽 공용 언어 등급(2001년 CECR)으로 재정립되어 DNR(언어 수준 지표)에 대한 기술, 영어로는 RLD: Reference Level Description)과 함께 공표되었으며 현재 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프랑스어·영어·러시아어 등 유럽 45개 언어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단지 유럽 언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47개의 회원국과 다른 국가들에게도 제안된 참조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다양성을 수용하여 변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언어권에 따라 고유의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다른 언어들과의 공통점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어 학습의 표준 지표로서 유럽 공용 언어 등급표를 사용할 수 있는가(유럽 공용 언어 등급은 아랍어 등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를 포함해 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에 적합하다.)와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만든 기준과 방법을 따라 한국어에 대한 등급 DNR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럽 공용 언어 등급을 기준으로 각 언어의 특수성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공용 언어 등급은 A1, A2, B1, B2, C1, C2의 6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 평의회에서는 A1 쓰기 수준을 엽서를 쓰는 정도로 설정하고 있고, C1 수준의 듣기 능력은 지역어의 악센트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각 수준별로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A1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자료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다. 연구진이 기준을 제시하면 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연구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는 학제 간의 연구팀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용 언어 등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학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언어의 문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의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히 문장 단위가 아니라 한 편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 분야를 ‘언어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특히 외국어 교육 관련 전문가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교육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학습자들이 실제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에 대한 시작과 중간 과정,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조건은 평가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다. 외국어 학습의 경우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전문가들의 참여가 당연하다. 이 집단에도 교사의 참여는 필수이다. 예를 들어 A1 수준의 불어 교육에는 반과거 시제를 가르치지 않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반과거 시제를 포함시키지 않고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를 받아들여 반과거 시제를 A1 수준에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프로그램과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맥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시험은 표준적이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다.

유럽 평의회는 한 언어에 대한 숙달성 정도가 시민권 취득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훌륭한 프랑스 시민이 반드시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유럽 평의회는 이러한 기준과 방법이 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어 숙달도와 시민권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강연이 끝난 후 언어 수준 등급 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7. 2011년 제3회 원내 토론회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3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주 제: 국어 순화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 발표자: 김문오(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학예연구관)
- 일 시: 2011년 9월 5일(월)
-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해 온 국어 순화 정책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어 순화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언어지원단 김문오 학예연구관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77년부터 2002년까지 순화한 21,000여 개 어휘를 모아 2003년에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을 발간하였고, 2004년 7월 5일 부터는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누리집을 마련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순화 대상 어휘를 선정하고 가려 뽑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양론이 맞서 있다.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래 요소와 잡스러운 요소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으며 쉬우면서도 품격 있는 말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어 순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새롭게 순화한 어휘가 언론들에게 잘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더러는 순화 대상 어휘의 뜻을 온전히 담지 못할 때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어 순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국어 순화 사업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순화 대상

어휘가 날로 폭증하는 실정인데도 국어 순화를 해야 한다는 언중들의 의식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본말 투 어휘를 순화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하여 국어 순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오늘날 순화 대상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구 언어 차용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중들이 순화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순화 대상어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순화어를 제시하기만 하였을 뿐 대국민 홍보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국어 순화 사업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당위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국어 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립국어원이 견지해야 할 국어 순화의 기본 방향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어 순화'도 아니고 '규범의 권위로 훈계하는 국어 순화'도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여 의사소통에 성공하자는 국어 순화'여야 한다. 이는 '최대 언중의 최대 이해'로 표현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의사소통 이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둘째, 어문 규범이나 어법에 맞는 표현, 품격 있는 표현, 외국어 투가 아닌 한국어다운 표현 등도 넓은 의미의 국어 순화에는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우선은 '쉬운 말 쓰기'를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

셋째, 언어의 공공성과 언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언어적 윤리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적 윤리성이란 언어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언어가 공적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는가를 반성하는 것이다.

한편 국어 순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 위주로 순화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순화어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의미 연상력, 조어 방식의 적합성, 음절 수, 친숙한 고유어인지의 여부, 관련된 선행 순화어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방송과 언론, 공공 기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순화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여 제시하였다.

먼저 많은 이들이 국어 순화의 목적은 사람들이 서로 쉽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언중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어 순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언중들이 따라 쓰라는 방식이 아니라 바꾸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말할 수 있는 ‘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순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빈도, 수용성, 대체성 등을 기준으로 순화 대상어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 쓰는 어휘부터 단계적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제기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순화 대상 어휘의 양을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 순화어 보급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이미 순화한 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화어를 널리 쓰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순화어 자체가 ‘새롭게 익혀야 하는 추가 정보’라는 점은 현재 순화어 보급을 가로막는 또 다른 이유라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어 순화는 시일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과 함께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공감을 표하며 두 시간에 걸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8.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8.1. 제97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제97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6. 24.)

[인 명]

- 길라니, (막둠 사이이드) 유사프 라자 (Makhdūm Sayyid) Yūsaf Razā Gilāni 우르두 어명: مخدوم سید یوسف رضا گیلانی 1952~ 파키스탄 정치가. 총리(2008. 3.~). 하원의장(1993~1997).
- 니시자키 다카코 西崎崇子 1944~ 일본 바이올린 연주자. 레번트릿 (Leventritt) 경연대회 바이올린 부문 2위 입상(1966). 줄리아드 (Juilliard) 협주 경연대회 1위 입상(1969). 낙소스(Naxos)사 회장 겸 창업자 클라우스 하이만(Klaus Heymann)의 부인.
- 놀런드, 빅토리아 Victoria Nuland 1961~ 미국 여성 외교관. 필립 크롤리(Philip Crowley) 국무부 홍보 담당 차관보 후임으로 내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 대사(2005~2008). 유럽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 담당 특사(2011. 2.~). 부친은 저술가이기도 한 외과의사 셔윈 놀런드(Sherwin Nuland).

- 던스트, 커스틴(캐럴라인) Kirsten (Caroline) Dunst 1982~ 미국 여자 배우 · 가수 · 패션 모델. 영화 ‘멜랑콜리아(Melancholia)’로 제64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2011. 5.). 부친은 독일계, 모친은 스웨덴계.
- 다이앤 폰 뤼르스텐베르크 Diane von Fürstenberg 본명: 디안 시몬 미셸 알팡 Diane Simone Michelle Halfin 1946~ 미국 여성 패션 디자이너. 벨기에 브뤼셀(Brussel) 출생.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 패션 협회(CFDA) 회장(2006~).
- 로넌, 세어서 Saoirse Ronan 1994~ 아일랜드 여배우. 미국 뉴욕시에서 아일랜드인 부모에게서 출생. 세 살 때부터 아일랜드에서 성장.
- 로젠베르크, 폴 Paul Rosenberg 1881~1959 프랑스 미술상. 피카소(Picasso)와 마티스(Matisse)의 작품을 대리 취급한 것으로 유명함. 파리(1911), 영국(1935), 뉴욕시(1940)에 화랑 개관. 나치의 박해를 피해 1940년 미국으로 이주.
- 매터퍼라이, 제러마이아 Sir Jeremiah Mateparae 애칭: 제리 Jerry 1954~ 뉴질랜드 군인 · 정치가. 총독(2011. 8. 31.~). 육군 중장. 마오리(Maori)족 원주민 출신. 아난드 사티아난드(Anand Satyanand) 총독 후임.
- 지니아츠키, 카롤리네 Caroline Woźniacki 1990~ 덴마크 여성 테니스 선수. 양친은 폴란드 인 이민자.
- 사티아난드, 아난드 Sir Anand Satyanand 1944~ 뉴질랜드 법조인 · 정치가. 총독(2006. 8. 23.~2011. 8. 30.). 오클랜드(Auckland)에서 피지 출신 부모에게서 출생 · 성장. 조부모는 인도 출신 피지 이민자.
- 생클레르, 안 Anne Sinclair 본명: 안엘리즈 슈바르츠 Anne-Élise Schwartz 1948~ 프랑스 전 언론인. 미국 뉴욕시에서 유대계 프랑스인 부모에게서 출생. 프랑스텔레비전1(TF1)의 유명 정치인 초청 대담 프로그램 ‘세트쉬르세트(7sur7)’ 진행자(1984~1997). 프랑스텔레비전1(TF1)의 자회사 이프랑스텔레비전1(e-TF1) 사장, 부사장(1997~2001).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부인. 미술

- 상 폴 로젠베르그(Paul Rosenberg)의 외손녀.
- 솔코비, 로빈 Robin Szolkowy 1979~ 독일 피겨스케이팅 선수. 페어 부문. 독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에서 출생. 부친은 탄자니아인. 모친의 성을 따름.
 - 알리스, 프랑시스 Francis Alÿs 1959~ 벨기에 미술가. 안트베르펜(Antwerpen) 출생. 1986년부터 멕시코시티(Mexico City) 거주.
 - 우말라 (타소), 오안타 (모이세스) Ollanta (Moisés) Humala (Tasso) 1962~ 페루 군인·정치가. 대통령(2011. 7. 28.~). 임기는 5년. 페루 국민주의당(PNP) 당수(2005. 11.~). 한때 서울, 파리 등지의 대사관에서 주재 무관으로 근무. 부친은 노동 관계의 변호사로 좌익 민족주의 지도자.
 - 이글버거, 로런스 (시드니) Lawrence (Sidney) Eagleburger 1930~2011 미국 정치가·외교관. 국무장관(1992. 12.~1993. 1.; 대행 1992. 8.~1992. 12.), 국무 부장관(1989. 1.~1992. 8.). 국무부 정무차관(1982. 2.~1984. 5.). 유고슬라비아 주재 대사(1977~1980).
 - 첸, 패트릭 Patrick Chan 광둥 어명: 陳偉群 1990~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남자 싱글 부문. 오타와에서 홍콩 출신 부모에게서 출생.
 - 캐나다, 제프리 Geoffrey Canada 1952~ 미국 사회활동가·교육가. 비영리 기관 할렘어린이지역(Harlem Children's Zone) 회장·최고경영자(1990~). 비영리 기관 티에이에스시(TASC: The After-School Corporation) 이사진의 일원.
 - 코스트너, 카롤리나 Carolina Kostner 1987~ 이탈리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여자 싱글 부문.
 - 코엘류, 페드루 (마누엘 마메드) 파수스 Pedro (Manuel Mamede) Passos Coelho 1964~ 포르투갈 정치가. 총리(2011. 6.~). 사회민주당(PSD) 당수(2010. 3.~).
 - 크롤리, 필립 Philip J. Crowley 1951~ 미국 정치가.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2009. 5.~2011. 3.).

- 파샤, 아마드 슈자 Ahmad Shujā Pāshā 우르두 어명: احمد شجاع پاشا
1952~ 파키스탄 군인. 중장. 제일 국가정보기관 아이에스아이(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 기관장(2008. 10.~).
- 포트르치, 마레티차 Marjetica Potrč 1953~ 슬로베니아 여성 미술가.
- 호프먼, 리드 Reid G. Hoffman 1967~ 미국 실업가·창업투자자. 인맥 관리 웹사이트 운영 기업 링크트인(LinkedIn) 설립자(2002. 12.). 회장(2007. 2.~), 최고경영자(2002. 12.~2007. 2.).

[일반용어]

- 링크트인 LinkedIn 구인·구직 및 업무 위주의 인맥관리 웹사이트명 혹은 동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명.

8.2. 제9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제9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8. 19.)

[인 명]

- 그리말디, 샬린 (리넷) Charlene (Lynette) Grimaldi 본명: 샬린 리넷 윗스톡 Charlene Lynette Wittstock 1978~ 모나코 왕비. 로디지아(Rhodesia: 현 짐바브웨)에서 독일·영국·아일랜드계 집안에서 출생. 198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란스발(Transvaal)에 이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영 선수. 모나코 공국 국왕 알베르 2세(Albert II)와 결혼(2011. 7. 1.).
- 라이트, 리베카 Rebecca Wright 1947~2006 미국 여성 발레 무용가
· 안무가·지도자.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 솔리스트(1975~1982). 워싱턴발레학교(Washington School of Ballet) 교장(2004~?).

- 세메냐, 캐스터 Caster Semenya 1991~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 육상 선수. 중거리 달리기 종목 선수.
- 스카버러, 찰스 조지프 Charles Joseph Scarborough 애칭: 조 Joe 1963~ 미국 방송인·저술가·정치가·법조인. 케이블 뉴스 채널 엠에스엔비시(MSNBC)의 아침 뉴스 대담 프로그램 '모닝조(Morning Joe)'의 사회자(2007. 5.~). 플로리다(Florida) 주 공화당 하원 의원 (1995. 1.~2001. 9.).
- 욘손, *힐데 프라피오르 Hilde Frafjord Johnson 1963~ 노르웨이 여성 정치가. 유엔 남수단 공화국 담당 특별 대표(2011. 7.~). 수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최고 책임자도 겸임.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2001. 10.~2005. 10.).
- 지터, 카멜리타 Carmelita Jeter 1979~ 미국 여자 육상 선수. 단거리 달리기 종목 선수.
- *카다피, 사이프 이슬람 (*무아마르) Sayf al ʾIslām (Muṣammar) al Qadhdhāfi 아랍 어명: سيف الإسلام معمر القذافي 1972~ 리비아 정치가·건축가. 비정부기구(NGO) 카다피 국제자선개발재단(GICDF) 총재. 공동 소유의 건축사무소 운영. 최고지도자 카다피(Muammar al Qaddafi)의 차남.
- 크리스토프, 아고타 Agota Kristof 1935~2011 헝가리 여성 작가. 1956년 헝가리 동란으로 스위스에 망명. 1978년부터 프랑스어로 저작 활동.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문학상을 수상. 대표작은 3부작 '비밀 노트(Le grand cahier)', '타인의 증거(La preuve)', '50년간의 고독(Le troisième mensonge)' 등.
- 파인스, *레이프 Ralph Fiennes 본명: 레이프 너새니얼 트위슬턴위 컴파인스 Ralph Nathaniel Twisleton-Wykeham-Fiennes 1962~ 영국 배우.

[인 명] -새로 심의

- 기미즈카 에이지 君塚榮治(きみづか えいじ) 1952~ 일본 군인. 육상 마료장(2011. 8. 5.~), 육상자위대 동북방면 총감(2009. 7.~2011. 8.), 육·해·공 통합 임무부대 지휘관(2011. 3.~2011. 7.).
- 저커버그, 랜디 (제인) Randi (Jayne) Zuckerberg 1982~ 미국 여성 실업가. 아르투제트 미디어(RtoZ Media) 창업자. 전 페이스북(Facebook) 마케팅 책임자로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누나.
- 클리시나, 다리야 Dar'ya Klishina 러시아 어명: Дарья Клишина 1991~ 러시아 여자 육상 선수. 멀리뛰기 선수. 주요 수상 경력: 2007년 세계유스육상선수권(Ostrava), 2009년 유럽주니어육상선수권(Novi Sad), 2011년 유럽23세미만(U23)육상선수권(Ostrava), 2011년 유럽실내육상선수권(Paris). 이상 금메달.
- 풍광타인 Phung Quang Thanh 1949~ 베트남 정치가·군인. 국방장관(2006~).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2006~).
- 허궈쑤 何祚庥 Hé Zuòxiū 1927~ 중국 물리학자. 중국과학원 이론물리연구소 연구원. 전 베이징(北京)대 교수. 전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연구 분야는 이론물리학, 과학사, 철학, 정치경제학.
- 홀케리, 하리 (헤르만니) Harri (Hermann) Holkeri 1937~2011 핀란드 정치가. 총리(1987~1991). 제55회 유엔총회 의장(2000~2001).

[인명] -재심의

- 세실 (프랭크) 파월 Cecil (Frank) Powell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1950, (영국 1903~69) -회의 30차
- 조던, 마이클 제프리 Jordan, Michael Jeffrey 미국의 농구 선수. -회의 22차

[지 명]

- 우퇴위아 섬 Utøya 섬 노르웨이 남부 튀리피오르덴(Tyrifjorden) 호수에 있는 섬.
- 튀리피오르덴 호 Tyrifjorden 호 노르웨이 남부, 오슬로(Oslo) 서북쪽 인근의 호수.

[일반용어]

- 멘토 mentor [일반] 영어

III.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1. 세종학당용 표준 한국어 교재 《세종한국어》 발간

세계는 지금 K-POP의 열기에 빠져 있다. 그런데 K-POP의 노래 가사가 궁금한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세종학당에서 찾을 수 있다.

듣고 싶은 K-POP, 알고 싶은 한국어! 《세종한국어》로 배운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현재 ‘세종학당’을 찾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세종학당의 표준 한국어 교재인 《세종한국어 1·2》를 발간하였다. 《세종한국어 1·2》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려서 재미있게 만든 책이다.

《세종한국어》에서는 언어 학습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한국 문화를 배

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는 난해한 외국어가 아니라 K-POP을 따라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나면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언어다.

세계 각지의 세종학당에서 함께 쓰는 한국어 교재

《세종한국어 1·2》는 세계 각지의 세종학당에 보급되어 표준 교재로 사용된다. 하노이에 있는 세종학당도, 파리에 있는 세종학당도 이제부터는 모두 《세종한국어 1·2》로 똑같이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계속해서 《세종한국어》를 뒷받침할 익힘 자료와 교원용 지침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와 자료들은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세종한국어 1·2》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교재이지만 국내외의 다른 한국어 학습에도 널리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립국어원, ‘짜장면’ 등 39항목 표준어로 인정

—언어 현실 반영하여 표준어 확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 상정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표준어 대상으로 선정된 총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뺨’ 등 모두 11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 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깬’,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3. 2011년도 제2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1. 자격 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가. 1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2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 -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2급-9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2005. 7. 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2급-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 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3급인 자(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 「2급-14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 과정 등록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3급-10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 7. 28. 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3급-1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필수 이수 학점 미취득자의 자격 부여 조치

- ①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내용: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격 부여
- ③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 이수 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경과 조치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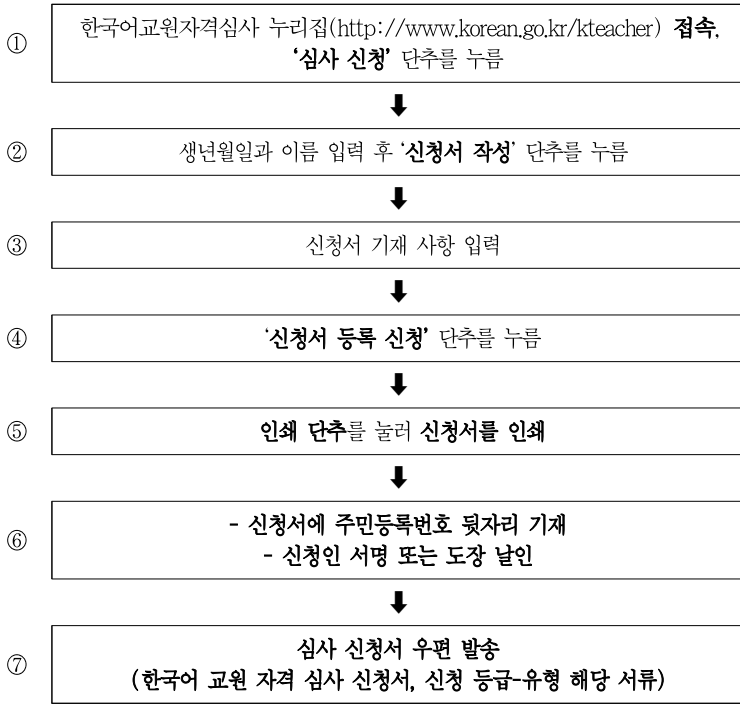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2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 7. 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 (국내외의 대학·부설 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 기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5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해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것만 인정함.
'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6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증명서
'05. 7. 28. 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	3급-7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3급-5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의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기간: 2011. 8. 29.(월) ~ 9. 23.(금)

4. 신청 접수 방법: 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바람.(2011. 9. 23.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2669-9671, 9672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가. 심사 신청서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진 누락 시

- ※ 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이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 신청자 서명이나 도장 날인 누락 시

나. '1급-12번', '2급-13번', '3급-5번':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

- 해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메일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다. '3급-11번':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양성 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 심사 결과 발표: 2011. 10. 21.(금) /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시기: 2011년 11월 초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7.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심사 누리집(<http://www.korean.go.kr/kteach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11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4.1. 2011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2011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지하철 5호선 종점 방화역 2번 출구에서 3분 거리)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1년 하반기)

- 9월 1기: 2011. 9. 19.(월)~ 9. 23.(금)
- 9월 2기: 2011. 9. 26.(월)~ 9. 30.(금)

- 10월 1기: 2011. 10. 10.(월)~10. 14.(금)
- 10월 2기: 2011. 10. 17.(월)~10. 21.(금)
- 11월 1기: 2011. 11. 7.(월)~11. 11.(금)
- 11월 2기: 2011. 11. 14.(월)~11. 18.(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 값(5일): 20,000원)

4.2. 2011년 하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신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어원 안에서 시행하는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 도시, 낙도, 벽지를 가리지 않고 무료로 국어 전문가들이 찾아가 여러분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문 강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기간: 2011년 하반기(7월~12월 중)
- 신청 지역: 전국
- 수강 인원: 1회에 30명 이상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에 따른 경비는 모두 국립국어원이 부담
 - 교재: 무료 제공(인원수에 맞게 신청 바람)
 - 강사료, 교통비 등 모든 경비는 국어원이 부담
- 개최 장소: 해당 지역 소재 공공장소(강의실, 강당, 구민회관 등) 활용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어문화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 연락처: 02-2669-9752,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4.3. 2011년 9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1년 9월(제249기, 제250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49기, 제250기

나. 교육 기간

- 제249기: 2011년 9월 19일(월)~9월 23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50기: 2011년 9월 26일(월)~9월 30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20,000원)

5. 국립국어원 제4기 국외 통신원 모집 결과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와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양한 국외 언어 정책 동향과 한국어 교육 현황 소식을 전할 국립국어원 제4기 국외 통신원을 모집했습니다.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정과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지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경은(중국), 성경숙(독일), 원진섭(멕시코), 최미희(타지키스탄), 한나(캐나다), 한상신(인도), 호광수(베트남), 홍혜련(태국)

IV. 국립국어원 인사 발령

신임

조원형: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발령(시보, 7월 5일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발령(시보, 7월 5일자)

박지순: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발령(시보, 7월 5일자)

승진

진영미: 기능 8급 사무실무원 → 기능 7급 사무실무장(8월 1일자)

안경자: 기능 8급 사무실무원 → 기능 7급 사무실무장(8월 19일자)

전보 발령

한보화(사무관):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 한국어교육진흥과(8월 22일자)

정현승(행정주사보):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8월 29일자)

박준형(공업서기):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8월 31일자)